

지역 소식통



**완주군 혁신도시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발표회 마무리**

완주군 혁신도시 아파트 공동체가 상반기 르네상스사업 발표회를 마무리했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 혁신도시 LH 10단지 아파트에서는 상반기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완료에 따른 주민 발표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진행과정을 되돌아보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LH 10단지 아파트 공동체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에서 상반기 동안 배웠던 킬트작품 전시와 라인댄스 공연을 펼치고 함께한 이웃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친목을 다졌다. 완주 혁신도시 아파트 공동체에서는 에코트 1단지의 '르네상스 동호회 작품 전시회 및 아비바다 장터'를 시작으로 에코트 2단지의 '살맛나는 축제 한마당'의 오키리나, 줄바덴스, 시낭송 공연, LH 10단지의 LH 10단지 르네상스 한마당'으로 상반기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발표회를 마무리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이후천 김제부시장, 첫 업무보고**

새로 부임한 이후천 김제시 부시장이 5일부터 3일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시정현안 파악에 나섰다. 실국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는 실과 소장과 실무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중점·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교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업무보고 이후 이 부시장은 부서별 담당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특히 AI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과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이 부시장은 시정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부시장 이·취임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업무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통해 민선 6기 4년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천 부시장은 "연초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시기"라며 "특히 하반기에는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를 비롯한 주요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부서간 협치와 협업을 바탕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생생마을 콘테스트 완주가 휩쓸다

4개 참가마을 전원 수상... 소양 오성마을 최우수상 전국대회 출진

완주군이 전북지역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휩쓸었다. 특히 최우수상까지 거머쥐면서 전북대표로 전국 콘테스트에 출진하게 됐다. 6일 완주군은 전북도청 공원에서 열린 '제4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참가한 4개 마을 모두가 수상하는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가한 4개 마을은 경관·환경 분야에 출진한 소양 오성마을, 문화·복지 분야의 용진 신봉마을, CAC(깨끗한 마을가꾸기) 분야의 운주 고산촌마을, 체험·소득 분야의 용진 두억 마을이다. 이 중 소양 오성마을(위원장 장택주)은 친환경 건축 한옥과 자연 경관의 뛰어난 어우러짐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완주군이 전북지역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휩쓸었다. 특히 최우수상까지 거머쥐면서 전북대표로 전국 콘테스트에 출진하게 됐다.

오성마을은 완주군의 마을 만들기 단계별 육성을 통해 이뤄진 친환경 건축인 한옥과 종남산, 서방산의 자연 자원이 함께하고 있는 한옥 휴양치유마을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오성마을은 1위권인 최우수상을 차지하면서 500만원의 상금 수상과 함께 오는 8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됐다. 문화·복지 분야에 출진한 용진 신봉마을(위원장 최홍순)은 2위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용진 신봉마을은 주민 48세대 중 27세대가 귀농귀촌인으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이 민요를 통해 마을 화합을 이뤘다. 위원장을 주축으로 주민들이 함께 노래 부르며 단합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CAC(깨끗한 마을가꾸기) 분야의 운주 고산촌마을과 체험·소득분야의 용진 두억마을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운주 고산촌마을(위원장 이기열)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대둔산과 천등산 자락에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마을산책길을 조성하고 폐가전제품을 활용해 냉장고 도서관을 설치하는 등 공동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마을이다. 용진 두억마을(위원장 박종배)은 한옥스테이로 인증 받은 밀암마을 제각을 통해 과거시립, 제례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이 이뤄지고 있다. 예전 마을에서 많이 부르던 지계가락소리과 풍물을 이어가려고 꾸준히 노력

하는 마을이다.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정은 "지난 2010년부터 주민과 함께한 완주군의 마을사업이 양적성장 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까지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을 대회를 통해 확인했다"며 "완주군의 공동체 활력 정책이 주민 소득 증대 뿐만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까지 강화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 대회 출진대표마을을 선정하기 위한 '제4회 생생마을 콘테스트'에는 전북 총 662개 마을이 인터넷으로 참가신청을 했으며,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선정된 16개 마을이 출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지평선축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체류형 축제 전환 도모... 판타지 쇼·별자리 관측 등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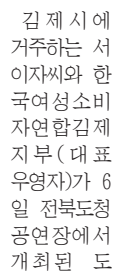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오는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개최되는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가 낮과 밤을 즐기는 체류형 축제로 전환하여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김제시는 축제기간 동안 관내 모든 숙박시설(일반 숙박업소, 팜스테이, 텀스테이, 밋조이 농가 등) 이용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 1객 실당 2,000원 상당의 축제 체험권 및 농특산물 구입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축제 체험권 및 농특산물 구입권은

숙박 및 예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행사장 구정문, 신정문 안내소에서 수령 가능하다. 이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을 시내로 유도하며 시내권에서 쓰는 1인당 소비규모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또한 시내권에서는 KBS국악한마당 등 전야제 행사와 5일간 불꽃쇼로 불거리를 제공하고 벽골제에서는 그간 축제 개·폐막식의 피날레를 장식해왔던 '지평선 판타지 쇼'가 레이저를

가미한 3차원 조명가법을 도입하여 기존 70m에서 140m 등 와일드 형으로 더 강화된 시공간가 생생마을에서 5일간 가을밤 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야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희망풍등 날리기', '지평선 등불', '별자리 관측'을 마련하여 야간 방문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2017년에는 김제지평선축제가 더 이상 스택하는 곳이 아닌 먹고, 자고, 체험하고, 느끼며 등 전야제 행사와 5일간 불꽃쇼로 불거리를 제공하고 벽골제에서는 그간 축제 개·폐막식의 피날레를 장식해왔던 '지평선 판타지 쇼'가 레이저를

## 양성평등유공 표창 수상 '영예'

김제 서이자씨·한국소비자연합김제지부 우영자대표



서이자

우영자

김제시에 거주하는 서이자씨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김제지부(대표 우영자)가 6일 전북도청 공원에서 개최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인식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2017년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범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14개 시군 약 1,0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었다. 서이자씨는 1980년부터 26년 6개월간 여성과 아동의 안전 및 피해 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과 부정 불량식품 시민감시단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지역사회내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 타

의 귀감이 되어왔을 뿐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여성의 의견을 대변하고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또한 한국소비자연합김제지부(대표 우영자)는 1986년부터 현재까지 30년 11개월간 매년 2회 한부모 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꾸준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보살펴 왔으며 그동안 지원한 금액이 무려 3,300만원이 넘는다. 전라북도는 매년 7월 초 양성평등 축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포상하여 격려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종자산업 보호·특화작목 육성

완주군이 국내 종자산업을 보호하고, 특화작목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6일 완주군은 완주군조합공동법인과 농협 계열의 국내 종자회사인 농우바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우바이오와 완주군의 업무협약은 자치단체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군은 새로운 판로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우선 군은 업무협약을 통해 품종 개발 시 우선 재배와 지도를 받게 됐다. 또 생산된 우수 농산물은 통합마케팅 조직인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계통출하하면서 유통단계별 축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농우바이오는 국내 종자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국내 종자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신품종 개발 시 특화 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재배 기술을 전수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종자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채소 종자들 중 상당수가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거나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된 종자를 사용하고 있어 로열티 지급으로 농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시 보건소, 건강 과일바구니 사업 '호응'

김제시 보건소가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건강 과일바구니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건강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많은 지역아동센터 3개소를 선정하여 96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3~4가지 종류의 신선한 제철과일을 섭취하

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비만예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6월은 건강 과일 샌드위치를 아동·청소년이 직접 만들고 건강 과일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과일이 우리몸에 좋은 이점에 대해 직접 이야기 나누며 영양교육도 실시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협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메르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음극지자 오일 지역중 휘트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지역 휘트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역중 휘트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인)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휘트	